

社說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하자

우리학교의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제도가 98년 입시에서는 감정중단되게 되었다. 뜬금없이 들려온 이 소식에 많은 학내구성원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시행한지 단 2년만에, 그것도 부작용과 시설부족을 이유로 중단하게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기 때문이다. 비록 수년내에 다시 부활시킬 것을 전제로 잠시 준비기간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지난주 우리신문에서도 밝혔듯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일뿐 복지시설의 부족은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와 대학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지원에 관심을 가져 왔던가. 지금까지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것이 육체적 불편함보다는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이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시설이나 예산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신체적 불편함을 이겨내고 곳곳이 선 인간승리의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잘 알려진 헬렌켈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얼마전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승리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우리곁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몇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도의 중단이라는 처방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 더우기, 98년 입시에서 33개대학이 1천3백71명의 장애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한데 비추어볼 때 우리학교의 이번 결정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없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조금씩 투자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지름길일 수도 있는 법이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갖추어진 시설이 아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이다.

진실 없이는 대권도 없다

얼마전 민주당 경리부 차장이었던 김재덕씨가 지난 대선당시 자신이 집행한 선거자금에 대해 1천3백억원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당시 같은 뿌리였던 자민련도 그 액수가 4천억원에서 4천5백억원에 이른다는 관련 증거까지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보사태, 김현철 비리의 몸통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선자금에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으로 비로소 수면위로 드러난 대선자금의 규모를 보면 놀라움에 앞서 절망감마저 드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최소한의 선거비용 절감은 커녕 조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가 대선하를 위해 뿌려졌다는 사실은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민초들이 납득하기에는 먼나라 이야기이다. 더구나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이때 무슨 면목으로 근검과 절약을 이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난해 전·노씨의 비자금 사건을 바라보며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았다. 더우기 깨끗한 도덕성의 정치를 문민정부에게서 기대했기에 4년이 지난 오늘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대선자금문제로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부정부패의 고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대선자금문제는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일지도 모르나 진실을 밝히고 절망의 부정부패를 끊는 시초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알권리를 무시당한채 살아왔고, 진실을 잊어버린채 지내왔다. 요즘을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곤두박질친 나라를 다시 살리자는 외침일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낡새나는 대선자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과연 무엇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을까.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한치의 기절도 없는 명명백백한 진실이다. 그것이 없이 다시 대권운한다면 어능능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 진실없이는 대권도 없다.

시론

고비용 정치구조 검은 돈 부른다

투명한 민주주의 만들기

정치계 기득권 포기해야 개선 가능
유권자, 비리 정치인 심판 필요

추미애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한보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와 돈의 부정적 유착관계가 정치불신, 정치혐오증 현상을 가져와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인식에 패배해져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경유착의 구조적 병폐를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한다.

야당지원 필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여 정치판을 세탁하겠다는 공약을 한 내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년동안 지역구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해 왔지만 나를 대로의 고충도 많았다. 경조사에는 참석하지 않아 불필요한 정치활동비는 들지 않더라도, 받고 있는 세비만으로는 의원회관 사무실만 간신히 운영할 수 있을 뿐 지구당 사무실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당비로서 운영되어야 할 지구당에는 당비를 낼 만한 여유있는 당원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힘

없는 야당초선의원에게 선뜻 정치자금을 후원할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복수정당제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뜻보다는 잠재적으로 여당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우리 국민들이 여당이 독주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수권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야당을 밀어줄 때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제도적으로 반대파를 용인하지 않고 집권당이 모든 기득권을 독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자금 제도가 정경유착을 심화시키고 정치의 고비용구조를 만드는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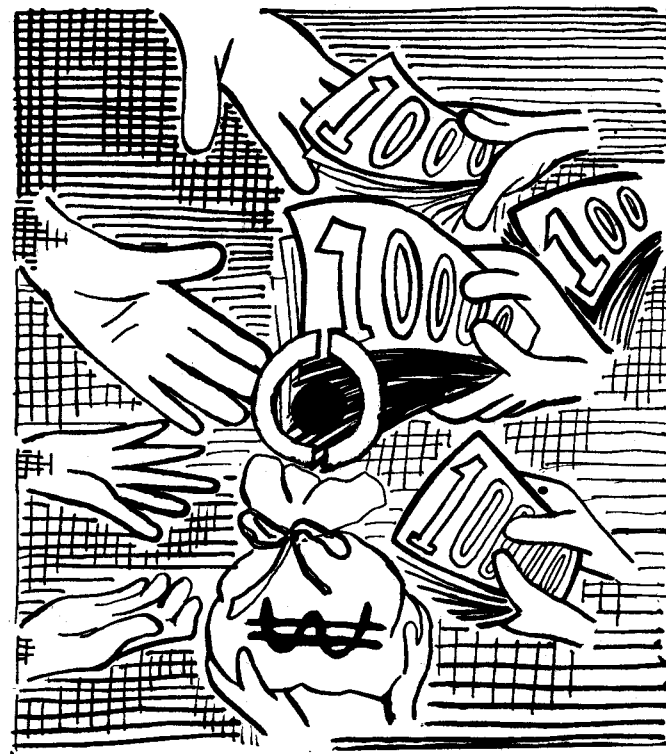
소위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부터 96년까지 여당에게만 1천억원이 넘는 돈이 기탁되었고, 올해 들어서도 석달동안 총 1백63억원이 신한국당에 들어갔다. 그동안 야당에는 단 한푼의 기탁금도 없었다. 이 나라 기업들이 정말로 정치발전을 위해서 여당만 기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당에게만 주었겠는가? 차라리 솔직하게 기업하는 입장에서 집권당과 거래할 수밖에 없다. 당비로서 운영되어야 할 지구당도 하고 잘못 보여서는 큰일 난다는 생각에서 힘있는 여당에게만 정

치자금을 제공했다라고 시인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번에 신한국당 당직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92년 대통령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을 훨씬 초과한 3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하는데, 그와 사용된 사조직 운영비용을 합하면 선거자금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자금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한국당은 공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사조직을 몇 개씩 만들어가면서 거액의 돈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사용 내역 공개요구

고비용정치구조의 개선은 집권당이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자세를 보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조달되도록 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전선거공명제를 보장해야 하고 기업 정치자금 기부 금지, 지정기탁금제 폐지, 불법적인 자금수수 처벌 조항 강화, 경조사비 지출 금지 등



을 통해 불법적인 돈 없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춰 배출된다고 한다. 선진국의 경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정치자금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비리는 다음번 선거에서 가져온다는 심판받게 된다는 믿음과 전통이 돈과 권력의 결합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견제장치이다. 즉 제도 이상으로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유권자들의 눈이다.

돈이 필요한 정치풍토

한보사건을 비롯한 정치자금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정치인

들에게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만 비난하고 있을 수는 없다. 선거때만 되면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고, 정치인들이 돈을 많이 쓴다고 욕을 하면서도 자신의 경조사에 오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풍토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 진정으로 깨끗한 정치를 원한다면 정치인들만을 욕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은 다시는 뽑아주어서는 안되며,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서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소액의 깨끗한 돈을 거두어주는 실천도 필요하다.

PC

통신원

한보청문회 역시 유명무실

국민열망 배반한 특위의 양심이 문제

국회한보사태특별조사위원회(특위)는 지난 1일 (주)한국기업평가 이상경 사장과 (주)한국신용정보장충열사장에 대한 심문을 끝으로 26일간의 한보청문회를 마쳤다.

특위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현장방문조사, 14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된 내용 등을 분석하고 지난 7일부터 청문회를 통해 홍인길의원, 김현철제, 정태수씨등 한보관련자 38명에 대한 심문을 벌였다.

청문회 초기에는 일부 관련자들을 구속하는 등 기존의 걸치레식 청문회와는 사뭇 다르게 진실규명의 지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증인들의 "모른다"로 일변하는 불성실한 답변태도와 특위원들의 준비부족, 당파싸움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된 결과 현재 국민에 의한 청문회를 다시 열자는 의견등이 PC통신을 통해 빚발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천리안 ID: CHH02, OBSCOM)

국회특위원들의 엉터리 심문도중 "존경했었습니다"라며 증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의 추태연출에 대해 "한보청문회 코메디론"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게 되었다.(ID: CS920308)

실망감만으로 점철된 이번 청문회가 더욱 국민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간 때우기식의 심문만으로 한보사태를 종결지으려는 정계의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청문회 본질자체도 의심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ID: A9703976) 청문회에 대한 비판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PC통신 토론광장에서는 실망감을 토로하며 비판의견을 범국민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의견의 통신인들이 토론참여 자 대다수를 차지했다.(ID: KKK1994, ABNGURD등)

한편에서는 전 제일은행 전무이사 고 박석태씨의 자살에대해 '한보청문회로 인해 야기된 가슴아픈 사건'이라는 의견도 있었다.(ID: AHN5260)

국민의 입을 통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비판의견들은 청문회라는 것이 현재에 와서는 청문회형 정치스타제초기 역할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용운 기자)

고 황 만 평

김진우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POSCO 메시지 대중제편



비율수록 채워지는
축제를 위하여 !

모두가 떠나버린 텅빈 캠퍼스엔
쓰레기들만 이리뿔굴, 저리뿔굴거립니다.
목청껏 외치고, 맘껏 뛰어놀았다 싶은데도
웬지모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채울수록 잔은 흘러넘쳐야 하는데
잔만을 크게할 뿐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곧, 축제가 시작됩니다.
빈수레일수록 요란한 법입니다.
축제가 끝난 때를 더듬어보십시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큼니다.
먼저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그릇에 낭만, 자유, 환희...
젊음의 특권을 모두 담으십시오.
젊음은 비율수록 채워지니까요.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